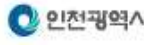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28일(일) 총 2매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당자	• 위생정책팀장 김혜정 ☎440-2761 • 담당자 박미숙 ☎440-2763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010-8501-7532			

인천시, 식품위생단체와 코로나19 극복 결의 다져
- ‘사회적 거리두기 자율지도 강화’ 간담회 개최 -
- 애로사항 청취 및 방역물품 지원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 26일 식품위생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지도 강화’를 위한 결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민·관이 협력하여 방역수칙 홍보 및 준수 계도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, 다시 한번 식품위생단체의 자율지도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.
- 이 날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,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, 한국유흥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,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, 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등 식품위생단체의 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으며,

-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 주요내용 설명,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지도 결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- 또한 마스크, 손소독제 등 자율지도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식품위생 단체별로 배부하여 위생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.
-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최근 코로나19로 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위생,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했으며, 시에서도 위생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〈간담회 사진〉

